

배아줄기세포 연구 윤리적인가

불교학술대회, 불교계 첫 공론화... '생명체 여부'에 초점



김종욱 교수



김성철 교수



곽만연 교수

찬 vs 반



허남결 교수



조성택 교수



윤영해 교수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적 논쟁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불교계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대표적인 불교학회 가운데 하나인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종표)는 11월 12일 동국대에서 '불교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계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의 윤리적 문제가 공론화되기는 이번이 처음.

대회는 중진 불교학자 수십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래 보기드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불교생명윤리연구위원회'를 조직해 생명윤리 현안에 대한 불교적 입장을 정리해온 조계종 또한 관계자를 파견할 정도로 학술대회는 교계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불교와 과학의 관계 설정 △일관성 있는 불교교리 해석의 필요성 △불교교리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소독으로 꼽을 수 있다.

●**일관성 있는 불교 교리 해석의 필요성 제기**
이번 대회에는 김종욱·허남결 동국대 교수, 곽만연 동아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김성철·윤영해 동국대 교수, 조성택 고려대 교수 등이 논평자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김종욱·김성철·곽만연 교수는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했고, 허남결·조성택·윤영해 교수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먼저 찬성론의 근거를 살펴보면, 김종욱·곽만연 교수는 수정란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욱 교수는 "불교에서 생명체는 유정(有情)이라고 밝히며 '유정이란 감각적 수용능력을 갖고 명목적 삶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것, 즉 감수성(精)과 의지성(行)과 행위성(業)을 특징으로 하는 존재자'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감수성·의지성·행위성 없는 수정란은 본질적인 인간이 아니다'며 '불

교에서 인간의 출발선은 입태라 할 수 있으며, 입태는 착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이슈화 되면 무렵부터 꾸준히 연구의 윤리성을 불교적 견지에서 옹호해 온 곽 교수의 입장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반해 김성철 교수는 "윤리에 따르면 사인(似人)을 해치는 것도 살인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며 사인의 한 형태인 수정란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제조법은 수정란이 아닌 난자와 체세포핵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향상된 기술로 평가하며 지지 입장을 위해 김종욱·곽만연 교수와 차이를 보였다.

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으로 탄생할 0.0001%의 가능성이 있다면 생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영해 동국대 교수는 토론하면서 지지에서 반대로 돌아선 경우, 윤 교수는 애초 황 교수의 연구가 체세포핵치환 기술을 이용한 무성생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황 교수 연구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 착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생명체로 봐야 한다고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윤 교수는 "붓다는 생명체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을 적극 금지했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다. 특히 흥미를 끌었던 것은 불교와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먼저 문제를 제기한 이는 조성택 교수.

조 교수는 중유(中有)에 대해 언급하면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중유가 결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음심(陰心)이 있어야 하는 데 그렇게 따지면 시험관 아기는 절대 태어날 수 없다"고 꼬집으며 "중유와 관련된 이야기는 불교의 생명탄생 설명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과학만 말한다면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한계를 불교가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산 스님도 "태내외우설에 나타난 태아에 대한 묘사가 1960년대 들어 밝혀진 것과 매우 유사하다"며 한 교수의 입장을 지지했다.

조 교수는 "그 같은 직관적 파악의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특수한 경우만 강조하다보면 정작 불교의 특징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논의 본격화... 12월 3일 중대 주제 세미나**
조계종 불교생명윤리위원회에서 생명조작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 누구보다 이번 학술대회에 큰 관심을 갖고 참석한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관한 불교적 견해 정립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구체성이 떨어진다느니 가지중립적이라는 식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불교적 입장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은 12월 3일(11월 26일)에서 변경될 예정인 조계종 불교생명윤리위원회 공개 세미나를 기점으로 중진의 공식 입장정리 행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찬 감수성·의지성 없는 수정란, 인간 아니다

반 잠재적 생명체로 봐야... 불살생계 강조도

다"며 "식물이 있는 곳에는 으레 벌레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런 곳에서는 대소변을 보지도 말라고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는 시각을 달리해서 접근했다. 윤원철 교수는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고통해소가 아니라 인욕이다"며 고통해소가 탐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국민은 배아줄기세포연구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치유에 대한 욕망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불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종표 전남대 교수는 부처님의 '무기(無記)'를 예로 들어 어디서부터 생명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배아줄기세포연구로 야기될 문명발전 방향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는 과학이다, 아니다**
토론에서는 불교적 관점 정리를 위한 연구

2006 한국불교학술대회

외국 학자 대거 몰려온다

2006년 4월 22·23일에 합천 해인사에서 열릴 제3회 한국불교학술대회(대회장 종림·이하 결집대회)에 외국인 학자가 대거 발표 신청을 해올 때 따라 이번 결집대회는 명실상부한 국제불교학술대회로 치러질 전망이다. 또한 조직위는 북한 학자들도 초청할 방침이어서 불교학을 매개로 한 남북 학문 교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회조직위(위원장 이종표)에 따르면 11월 15일 현재 논문 발표 신청자는 127명. 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59명이 외국인이다.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3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홍콩 포함, 13명), 인도(3명), 태국(2명) 순이다. 네덜란드,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발표신청자도 각 1명씩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174명이 참가한 지난 2회 대회의 외국인 참가자 44명을 훨씬 뛰어넘은 수준으로, 조직위가 추진하고 있는 영연권 불교학자 팀 구성이 성사될 경우 외국인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내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외국인을 참석시키기 위해서는 항공료와 체재비,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고 보면, 모든 비용을 참가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면서까지 결집대회에 많은 외국학자가 몰리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는 평가다. 특히 외국학자 57명 가운데 44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며,

발표 신청자 127명 중 59명이 외국인

北 학자 초청 계획... 국제 위상 높아져

교수도 31명이나 된다는 사실에서 결집대회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대회조직위가 북한의 불교학자를 이번 결집대회에 초청하기로 한 점. 대회조직위는 지난 4일 서울 타워호텔에서 열린 참여단체장 및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조직위는 불교가 남북한 공통의 정신적 뿌리라는 점에서 북한 측도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쪽의 학자가 방북한 적은 많았으나 북한의 학자가 방남해서 학술교류를 한 적은 거의 없다.

이처럼 외국학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한 데 반해 한국 학자의 참여 신청은 부진을 면치 못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현재 한국인 발표신청자는 68명. 이 가운데 교수는 29명에 불과하다. 현재 학계에서 활동 중인 박사 취득자가 150여 명이며, 교수만도 70여명(불교관련분야 포함)이나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초라한 수치다.

조직위는 뒤늦게 발표신청하는 이들이 많았던 예년의 사례에 비추어 신청접수 창구를 열어두는 한편, 개별학자들을 직접 접촉해서 발표를 권고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집행부는 사찰의 강원을 방문해서 학인 스님들의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조직위원장 이종표 교수는 "불교학자와 수행자가 불교학을 주제로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결집대회가 해인사에서 열리는 만큼 불교학자와 수행자가 어우러져 불교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대회부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불교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제정·수여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박익순 기자

* 기사남처 '박익순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읽는다.

육임 활용도서 · CD 프로그램 大 할인 판매

육임나라에서는 아래 육임 활용도서 · CD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할인 판매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각자 필요한 육임 활용도서 및 CD를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1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70만원
2K 월영도 + 육임시보단정	40만원
3K 효사활인천역집 + 월영도 + 효사숙사주 (성명학외 17종) (효사활인천역집 III 업그레이드 판 CD 입니다)	170만원
4K 효사숙사주 + 육임시보단정 + 피타고라스 대점술	50만원
5K 육임대계전서 (전60권)	170만원

월영도에 있어 미진한 부분을 모두 해소시켰습니다.

또한 위 각 프로그램 보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담내용 저장 기능
- 사주기동으로 출생 년월일시 찾는 기능
- 사주기동으로 회원 검색기능
- 월영도 지성법(도표) 활용법
- 효사숙사주 프로그램(성명학 외 17종) 정착

* 위 CD 프로그램은 직접방문하여 설치해 드리고 활용방법을 익숙하게 알려드립니다.

육임대계전서 (전1권)	15만원	육임강의록 (전12권)	20만원
육임대계전서(후대용) (전6권)	20만원	육임비요형이상법 (전1권)	5만원
도사에게 물어봐 (전1권)	1만5천원	육임운명판단법 (전1권)	5만원
육임대계전서(최종용) (전12권)	50만원	육임세밀정단법 (전1권)	5만원
육임대계전서(후대용) (전12권)	70만원	육임강의비디오 CD (전63개)	50만원
육임대계전서(수정보완본) (전12권)	100만원		
육임신수비결 (전1권)	15만원		
각일각시택일출생비법 (전1권)	5만원		

■ 주문전화 02)993-8680 (담당: 이명옥)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00-951487 육임나라(주) 입금 통보 후 다음날 한잔택배로 도착 됩니다.

육임연구반
모 집

- 장 소 : 부산 영산대학교 서면 캠퍼스
- 모집인원 : 육임 예측신과 (00명)
- 강 사 : 공인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산지회장, 성민경
- 문 의 : ☎ 051)556-8387

육 임 나 라 주 식 회 사